

“십자가를 심으라”는 제목의 본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니라, 일생 동안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과 이웃의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의 이웃이 되어 소망의 십자가를 30년 동안 심어온 김진숙 목사님의 깊은 체험 속에서 영근 값진 이야기입니다. 노숙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된 김 목사님의 사역동기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시키시어 노숙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뜨거운 감동이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총 정리하고 후세들에게 그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퇴한 나이에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을 씀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미국사회에 만연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노숙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고, 이의 치유를 위한 노숙사역 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한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값진 자료입니다.

NKPC(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는 2003년에 한인이민 백주년 기념 총회를 가지면서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고 우리의 결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도시, 그리고 미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간에 평화와 정의, 화해와 치유를 증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였고, 2005년 “Seek the Welfare of the City”의 주제로 가진 34회 총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 동안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에는 많이 힘써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에는 크게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영안을 열어 우리의 영적 노숙자 됨을 보게 하시고, 본서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교회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이 귀중한 자료를 나누어주신 김진숙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NKPC(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와 총회 한미 목회실이 공동으로 출판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주 후 2008년 1월 1일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종민 목사

일생을 노숙사역에 바치시고 미국장로교 노숙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사역을 꽃피우신 존경하는 김진숙 목사님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으라”가 출판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김 목사님의 평생 사역의 결실로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논문으로 쓰신 것을 간추려 한인교회의 노숙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위해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조그마한 힘이나마 더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인 노숙사역을 단순히 선교와 사회정의신학의 관점에서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사역에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 바친 김진숙 목사님의 숨결과 피와 살이 진하게 배어있어 우리 주님의 성육신적 목회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전도와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은사가 큰 교회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이 부분의 사역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전도와 함께 통전적인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위한 선교적,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 선교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심하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김진숙 목사님의 “십자가를 심으라”가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디아코니아 사역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장로교총회 산하 한인교회들뿐만 아니라 미주전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이 사회적 책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김선배 목사
총무, 미국장로교 총회 한미목회실
2008